순천제일고 배구 올 전국대회 두번째 정상 '포효'

정읍내장산배 결승서 수원 수성고와 치열한 접전 끝에 3-1로 꺾어

춘계연맹전 이어 또 우승…임정식 최우수선수상 등 개인상 휩쓸어

순천제일고등학교 배구부가 올시즌 두번 째 전국 배구대회 정상에서 포효했다.

전남배구협회(회장 조재만)에 따르면 순천제일고가 21일 전북 정읍국민체육센터에서개최된 '2023 정읍내장산배 전국 중·고 배구대회' 결승에서 수원 수성고를 3-1(25-20, 20-25, 25-22, 25-19)로 꺾고 우승을 차지했다.

김남중 감독이 이끄는 순천제일고는 이날 치열한 접전 끝에 수성고를 제쳤다. 수성고는 우승 후보로 꼽힌 팀이다.

1세트에서 초반 내리 3점을 주며 끌려갔으나 단단한 블로킹과 강력한 스파이크로 역전에 성공하며 25-20으로 1세트를 매조졌다.

수성고의 반격도 만만치 않았다. 순천 제일고가 2세트를 20-25로 빼앗겨 세트스코어 1-1이 됐다.

순천제일고는 3세트 초반 리드를 잡은 뒤 25-22로 세트를 따낸 데 이어 마지막 4세트에서 강력한 스파이크를 비롯해 속공으로 25-19로 제압했다.

순천제일고는 올시즌 2승째를 올리며 전국 최강으로 우뚝섰다.

지난 3월 2023 춘계 전국중고배구연맹전에서 우승하며 대회 2연패를 달성한데 이어 이번 대회까지 정상에 섰다.

순천제일고는 개인 부문상을 쓸어담았다.

임정식(3년)은 최우수선수상을 받았고, 백수현(2년)은 공격상, 최보민(3년)은 리베로상, 임태호(2년)는 레프트상을 받았다.

정청운 코치는 최우수지도자상을 수상했다.

김남중 순천제일고 감독은 "서로 믿고 소통하며 좋은 경기력을 펼쳐 성과를 거뒀다"며 "오는 7월에 영광에서 열리는 제56회 대통령배 전국중·고배구대회와 제104회 전국체육대회도 잘 준비해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정읍내장산배 전국 중·고배구대회에서 우승한 순천제일고 배구팀. 〈전남도체육회 제공〉

구례군청 선채림·최희화 여자장사 '등극'

강릉단오장사씨름대회 매화·무궁화장사 타이틀

구례군청 선채림,최희화가 '위더스제약 2023 강릉단오장사씨름대회'에서 개인 장사 타이틀을 차지했다.

선채림은 21일 강원도 강릉시 강릉 단오제 행사장 씨름장에서 열린 대회 매화장사 결정전(60kg 이하)에서 양윤서(영동군청)를 뒤집기와 들배지기로 2-1로 제압, 장사에 등극했다. 선채림은 설날 대회에서 올시즌 두번째 매화장사 꽃가마를 탔다.

최희화는 무궁화장사 결정전(80kg이하)에서 박민지(영동군청)를 꺾고 2년만에 무궁화 장사에 복귀했다. 그는 개인통산 7번째 무궁화장사 타이틀을 거머쥐는 기쁨을 누렸다.

최희화는 박민지에게 한판을 먼저 빼앗겼으나 안다리와 뿌려치기로 2-1로 승부를 마무리했다.

김송환 감독이 이끄는 구례군청 씨름단은 앞서 열린 단체전(팀 5전 3선승제·개인 3판 2선승제)에서도 정상에 올랐다.

선채림·엄하진·김시우·이세미·최희화로 팀을 이룬 구례군청은 거제시청(경상남도)을 3-1로 제압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구례군청(전라남도)씨름단이 '위더스제약 2023 강릉단오장사씨름대회' 여자부 단체전 우승을 기념하고 있다. 〈대한씨름협회 제공〉

광주 종목단체 회장 3명, 대한체육회 자문위원에

전갑수(왼쪽)광주시체육회장이 22일 광주시체육회 2층 접견실에서 김창승 펜싱협회장에게 대한체육회 자문위원 위촉장을 전달하고 있다. 〈광주시체육회 제공〉

전갑수 시체육회장, 위촉장 전달

광주시체육회는 광주 종목단체 회장 3명이 대한체육회 자문위원으로 위촉됐다고 22일 밝혔다.

김유홍 생활무용 협회장은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기본방침과 연구·조사 등 방법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는 생활체육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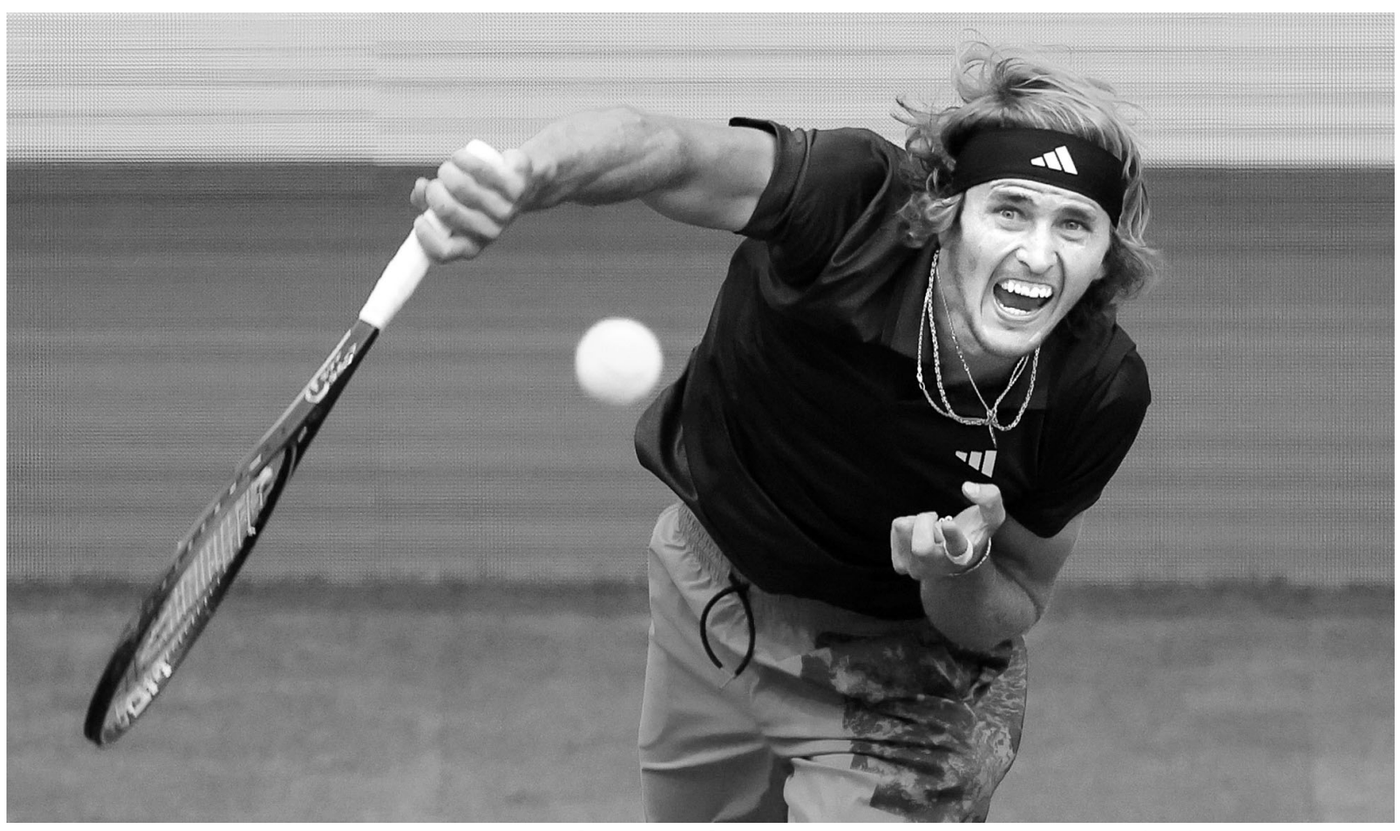
김창승 펜싱협회장은 스포츠영웅 사업 기본계획과 추천·평가·심사를 담당하는 스포츠영웅선정위원이 됐다.

박형택 전 바둑협회장은 체육단체와 지역상생을 위한 정책수립과 촉진 계획을 추진하는 지역 상생위원회 소속으로 활동하게 된다.

이번에 선정된 위원은 위촉일로부터 2025년 정기총회 전날까지 2년 동안 대한체육회 운영과 사업을 자문하게 된다.

전갑수 광주시체육회장은 "광주 종목단체 회장님들께서 중앙 무대에서 대한민국 체육발전을 위해 힘써주실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내 서브 받아봐!" 22일 독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할레에서 열린 할레 테니스 오픈 16강전에서 알렉산더 즈베레프(독일)가 캐나다의 데니스 샤포바로프를 상대로 강력한서브를 넣고 있다. /연합뉴스

'접영 챔피언' 밀라크, 세계수영선수권 불참

"정신적·신체적 문제…충전 필요"

남자 접영 100·200m 디펜딩 챔피언 크리슈토프 밀라크(23·헝가리)가 2023 후쿠오카 세계수영선수권대회 불참을 선언했다.

밀라크는 22일(한국시간) 소속팀 혼베드를 통해 성명서를 내고 "현재 나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세계 최정상급 선수와 경쟁할 상황이 아니다"라며 "무거운 마음으로 후쿠오카 세계선수권 불참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후쿠오카 세계선수권은 7월 14일에 개막한다. 경영 경기는 23일부터 열린다.

밀라크는 경영 경기 시작을 약 한 달 앞두고 출전을 포기했다.

지난해 열린 2022 헝가리 부다페스트 세계선수권에서 밀라크는 접영 100m(50초14)와 200m(1분50초34)에서 2개의 금메달을 획득했다. 접영 200m에서는 세계기록을 세웠다.

밀라크는 2019 광주 세계선수권 접영 200m(1분50초73·당시 세계신기록) 금메달리스트이자, 2021년에 열린 2022 도쿄올림픽 접영 200m(1분51초25·올림픽신기록) 챔피언이기도 하다.

그는 올해 4월에 열린 헝가리 대표선발전에서도 접영 200m(1분52초58)와 100m(50초80)에서 우승했다.

하지만, 기록에 관한 실망감이 컸다.

밀라크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에 관한 답을 찾고자 애쓰고 있다"며 "현재는 내 최고의 모습과는 거리가 있다는 걸 잘 안다"고 고민을 드러냈다.

이어 "지금은 다음 도전을 위해 배터리를 충전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후쿠오카 세계선수권에는 불참하지만, 2024년 파리올림픽 출전 가능성은 남아 있다.

밀라크는 "이번 여름에는 충분히 쉬고, 이후 더 많은 에너지로 훈련하고 대회에도 나서겠다"며 "곧 돌아오겠다"고 했다. /연합뉴스

즐거운 문화산책

LOTTE CINEMA | 충장로관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1관	범죄도시3
2관	귀공자, 스파이더맨: 어크로스 더 유니버스
3관	범죄도시3
4관	귀공자, 인드림
5관	엘리멘탈, 귀공자, 나비효과
6관	스파이더맨: 어크로스 더 유니버스
9관	플래시, 트랜스포머: 비스트의 서막,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Volume 3
7관 씨네커플	엘리멘탈, 귀공자, 스파이더맨: 어크로스 더 유니버스
8관 씨네커플	범죄도시3, 수라

광주예술의전당 문의 062)613-8233

광주시립국악관현악단 제 134회 정기연주회
평화를 향한 역동과 진혼
일시 : 2023-07-25(화) 19:30
장소 : 광주예술의전당 대극장
문의 : 062-415-5403

기획공연 포커스 장하은 콘서트'Once Again'
일시 : 2023-07-18(화) 19:30
장소 : 광주예술의전당 소극장
문의 : 062-613-8233